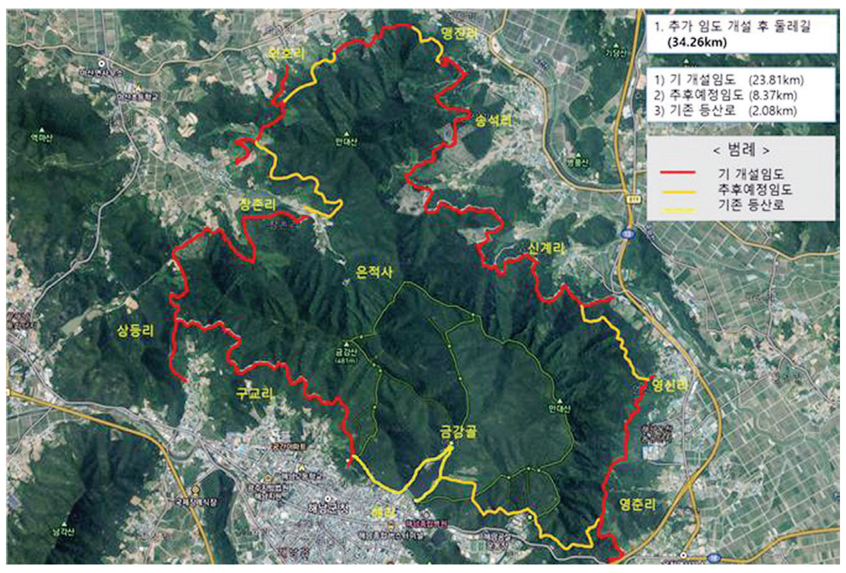
해남 금강산에 '명품 둘레길' 조성

총연장 34.26㎞…2021년부터 3년간 사업비 26억6700만원 투입

트레킹 · 바이킹 · 힐링길 육성 "친환경 공법으로 훼손 최소화 할 것"



해남군은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 해남읍 금강산 일대에 총연장 34.26㎞의 명품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둘레길은 금강산, 만대산 일대 기존 임도와 등산로 등 25.89㎞를 연결하고, 미개설 구간에는 신설임도 8.37㎞가 조성된다.

2021년부터 3년간 실시되는 둘레길 조성사업에는 사업비 26억6700만원이 투입된다.

둘레길은 해남읍 팔각정(태평정)을 기점으로 마산면 아침재, 은적사, 북창, 송석, 옥천면 신계, 해남읍 금강골 구간까지 이어진다.

해남의 역사가 있는 이야기 길이자 갈길, 흙길, 모래길, 꽃길 등 다양한 노선으로 구성해 해남읍권의 명품 둘레길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존 임도 내에 위치한 해남읍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구간을 비롯해 편백·백합나무숲 구간, 광활한 들녘과 주작산·흑석산의 절경이 조화를 이룬 구간 등도 둘레길 내로 편입시켜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마산면 송석에서 옥천면 신계 구간은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바이킹길로 정비된다.

군 관계자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친환경 공법으로 훼손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단체별 관리 구간을 지정해 주민 생활형 둘레길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저출생 대책 평가 '우수 기관상'

젊은 세대 결혼 장려 통한 출산율 및 인구증가 목표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높은 평가'

장흥군이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20년도 시·군 저출생 대책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남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출산율 및 출생아수, 시책사업 추진과 우수사례 발굴 등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장흥군은 젊은 세대 결혼 장려를 통한 출산율 및 인구 증가를 목표로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했다.

결혼 적령기 남녀 만남의 기회 제공을 위한 솔로엔딩 연예컨설팅 지원, 다자녀 가정에 차량 지원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흥군은 저출생 극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결혼장려금 500만원과 출산장려금 첫째·둘째 300만원, 셋째·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 주거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장흥군의 출산율은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홍주 거리로 오세요"…지역골목경제 상권개발 사업 추진

진도읍 남문로 상가 리모델링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진도군이 장기화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골목 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에 나서고 있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골목경제 상권개발 사업에 '홍주가 흐르고 진도개도 신명나는 오홍통'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은 읍내 중심상권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도만의 고유 정체성인 홍주나 진도개 등을 가지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군은 공·폐가와 주차장 공간을 공동체 커뮤니티로 조성해 소통과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협동조합 판매대와 공동 조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과 상인, 관광객들을 위한 사랑방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골목경제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 ▲홍주 판매소 '홍주상점' 운영 ▲진도개를 주제로 캐릭터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문화가 경제가 되고, 경제로 공동체가 강화되는 지역골목경제 상권개발 사업 추진을 지역주민과 상가 상인, 전문가 등 골목경제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독특한 문화·관광·먹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민원 발생 악취사업장 측정 공표

악취 민원 3회 이상 발생·2019년도 집단민원 발생 사업장 9개소

청정 강진군 지키기 위한 시책으로 악취사업장 시설개선 유도

강진군 환경축산과에서는 강진산업단지 등 악취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2019년도 집단 민원이 발생했던 사업장 9개소에 대해 2020년 한 해 동안 분기별로 악취를 측정해 반상회 등에 공표해 왔다.

악취 배출 허용 기준과 측정 결과를 수치로 군민들에게 공표해 악취 배출 사업장의 부적정 운영을 근절하고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악취측정의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강진산업단지와 집단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지역의 기관사회단체 대표 및 주변 마을 이장 등의 참관하에 악취 시료를 채취했다.

정기적인 공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악취 기준을 3배가량 초과한 A사업장에 대해 2회에 걸쳐 시설개선 권고를 했고, 이에 사업자는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겠다며 악취방지시설을 대폭 증설해 현재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며 악취 민원을 발생시켰던 B와 C 사업장의 경우,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민원과 사업장의 폐기물처리 부적정 운영을 수시로 제보했다. 그때마다 군은 환경지도 단속을 강화했으며 결국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다른 사업장들 또한 생산시설 교체 및 악취방지 시설 개선으로 악취 저감에 동참해 주변 지역주민과 악취 시료 채취 참관자들로부터 지난해보다 악취가 많이 줄었다는 평가를 들었다.

임창복 환경축산과장은 "현재 상기 사업장은 폐기물처리로 인한 악취 민원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오염 행위 예방과 악취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지도단속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악취측정과 주민들의 악취 민원 접수 시 악취를 측정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사업자가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인증 획득

2018·2019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사례 평가 행안부 장관 표창

완도군이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인증(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의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사례 평가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고, 향후 2년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제는 상생협력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단체와 기관의 우수사례를 인증하고 포상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군은 지난 2015년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에 이어 두 번째 인증을 받게 되었다.

완도군과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주)은 상생·협력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퇴직공무원에게 새 출발을 기원하는 운동화 및 기념 배지 전달, 노사 가족이 함께 하는 효애화(孝愛和) 여행 추진, 친절 공무원에게 간식 배달통을 지원하는 '칭찬배달통이 간다', 노사 화합 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완도=김광수기자